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신년호 | 2017년 1월 23일

발행인 유병우 회장  
 편집인 오홍열,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 <2017년 신년호 유병우 회장 인사말>

### 연합회 역량 집중·불합리한 택시발전법 개정할 터!

교통안전법·여객법·도로교통법, 개인택시에 불리한 법률 소위통과 저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4천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격동과 혼란의 병신년 한 해가 저물고 정유년 붉은 닭띠의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민심이 반영되고 평화롭게 수습되어 제2의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연합회는 작년 정치권의 혼란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어느때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연합회의 국회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국회중심 입법 활동 전개

작년 12월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 개인택시업계의 최대 현안문제 법안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심사해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 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상기 법안의 주요 내용의 원안은 운행기록자료를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안이었으나 정부수정안으로 가결돼 택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영상기록장치 부착의무화(미부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안과 유아용(6세 미만)카시트 부착의무화(미 부착 시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좌석, 전 도로 좌석안전띠 의무착용(과태료 500만원 이하)법안인 정부안은 소위에 계류됐으며, 의원안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 ◇ 택시발전법 개정 국회 청원

작년 12월 29일에는 국회의원 62명이 서명하고, 8만1243명의 청원 서명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유기준 국회의원을 대표 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상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감차계획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연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상기법안이 개인택시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시산업 세제와 관련하여 지급기간이 2016. 12. 31. 부로 종료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을 택시연료(LPG부탄)는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는(2017.1.1~ 2018. 12.31 1년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마련하였으며, 관세법 제71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LPG 할당관세 적용 일몰연장을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 했습니다.

1일 유류(LPG)사용량 축소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했습니다. 정부는 유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행)180리터를 사용하는 것을 100리터를 사용 하라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택시업계의 적극반대로 지급지침 개정 추진을 보류 했습니다.

택시를 비롯한 교통단체의 초미의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도입과 관련하여 연합회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면에 계속...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보다 더 우대받는 대출은 없을까?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이라면 신용대출보다  
 평균 8.6%p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한도 5,000만원 + 최저금리 연 5.5% + 각종 수수료 면제



####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저 300만원~최고 5,000만원
- 금리 : 5.5~19.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48개월 중 택일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연체 이자율 : 17.9~27.9% (고객·기간별 차등 적용)

####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

####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10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 (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 가능

####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전화상담 : 1899-6282 (전문상담원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 차량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 송금 가능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16-L1b-02128호(2016. 12. 01~2017. 11. 30)

※ 신용대출 금리 비교 예시 : 2016년 7월, 자사 신용대출 금리 기준(신용등급 1~3등급 이내 우량직장인 적용 금리)  
 ※ 일부 고객의 경우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 도입

고령화 문제는 비단 교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5년 전부터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70년 당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62.3살이었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82.1살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살로 높일 경우 2050년 노인 인구비중이 37.4%에서 29.7%로 낮아지고 생산인구 비중은 52.7%에서 60.3%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일자리와 그에 따른 소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합회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약했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업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연기할 것, 둘째, 생계대책 등 선대책 마련 후 시행할 것, 셋째, 사고유발자 위주로 검사할 것, 넷째,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고령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 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우리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 중 고급 승합택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업구역을 확대(기초→광역)하고,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요금체계를 다각화(미터기 요금(시간·거리 병산제)와 시간제·구간제·협정제 도입)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현안문제는 2017년에도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과 16만 4천 사업자 여러분과

함께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 LPG부가세 면제 추진

첫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사업이 시행 중에도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추진하고, 택시감차보상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감차재원을 마련하고, 감차보상 실시로 수입증가효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대통령선거 공약에 채택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택시연료(LPG부탄) 가격안정화 추진, LPG 공급사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앱을 이용한 무분별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근절대책 강구, 개인택시차량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택시표시 등 광고사업 시범운영 실시 추진 등 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정유년 한 해가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권과 사회적 분열 및 혼란으로 시작 되었지만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과거 개인택시의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 등 과거의 명성을 되찾도록 합시다.

세상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에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온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깃드시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책 NEWS

## 2017년 첫 이사회 총회 및 국토부 정책간담회 가져

신임 광주·경기·충남·제주조합 이사장 참석, 부회장·이사 등 임원 선출  
국토부, 개인택시연합회 '긴밀하게 협조·소통하겠다' 약속

연합회는 1월 13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제1회 이사회 및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유병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해는 사드배치 논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여당의 분당 등 작년 한해는 혼란의 연속 이었으나 금년 정유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시국일수록 16개 시·도 이사장과 일치 단결하여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의안으로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으로 광주조합 이길로 이사장, 경기조합 김영식 이사장, 충남조합 홍선기 이사장, 제주조합 전영배 이사장을 선임했다.

제2호 의안으로 연합회 제11조 제2호에 의거 부회장 1명을 선임 의결했다. 이로서 연합회 부회장단은 이연수 서울조합 이사장, 박권수 부산조합 이사장, 전북조합 박상익 이사장, 경북조합 서돌식 이사장으로 구성됐다.

제3호의안 연합회 감사 선임의 건으로 대구조합 김순락 이사장을 선임하고, 강원조합 김주원 이사장을 선임했다.

제4호의안 공제조합 감사선임에 관한 건으로 광주조합 이길로 이사장, 충남조합 홍선기 이사장을 선임 의결 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신고통개발과 신윤근 과장, 택시팀 김희천 팀장, 유병철 사무관과 택시현안문제를 논의 했다.

유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택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택시발전기본계획은 개인택시죽이기로 규정하고 시·도조합 이사장은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당부 했다.

대구조합 김순락 이사장은 택시발전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택시임대제는 또 다른 지입제라며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택시업계가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신중하게 판단 할 것을 지적했다.

박권수 부산조합 이사장은 택시임대제는 법인택시 부탁받고 국토부가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당장 중단 하라고 했다.

박상익 전북조합 이사장은 양도·양수 강화를 규정한 택시발전기본계획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개인택시는 노후대책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이연수 서울조합 이사장은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16만 4천 개인택시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연령이 많다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제조합 통계도 있다고 말하고 택시운전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했다.

최현태 충북조합 이사장은 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으나 노조 측 의사를 국토부에서 너무 참고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결국 개인택시를 죽여서 법인택시 살리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다.

서돌식 경북조합 이사장은 대중교통법 거부권 행사 후 국토부에서는 이에 버금가는 법을 만들어 준다고 했으나 현행 택시발전법은 악법이라고 했다.

김주원 강원조합 이사장은 법인택시임대제는 개인택시를 죽이는 것이고 감차할 때 어느 지역이던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해 주면 해결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식 경기조합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지입제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화물, 전세버스 전체 95%가 지입제이며 법인택시가 임대제를 하면 관리와 통제가 안된다고 했으며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이 고령운전자라고 했다.

유병우 회장은 지금 시·도조합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



▲ 택시현안문제 간담회에 참석한 신고통개발과장 신윤근, 택시팀장 김희천, 유병철 사무관(우측부터)

이 개인택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문제로서 국토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양도·양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문제이며, 법인택시 지입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개인택시도 2인1차제를 검토 해달라고 요청 했으며, 차관 면담을 신청했으니 국토부 직원들이 성사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 했다.

이에 대해 신윤근 과장은 "어려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양도·양수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문제이며 임대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희천 팀장은 "고령운전자 정밀검사 강화는 자격·면허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버스의 탈락율은 5% 미만"이라며, "일반인이 운전하는 것과 유상운송 운행과는 다르다"고 했다. 특히 차량제도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차령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시·도조합 이사장의 열띤 건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더욱 개인택시업계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개인택시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INTERVIEW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간사 (더불어민주당)



# 택시문제의 핵심은 공급 과잉 정부 정책 실패 택시업계 떠넘기기는 잘못

## 지역별 특성 반영된 현실적인 감차 정책 이뤄져야 지역별 적정 택시 공급위해 총량 산정기준 재보안 필요

탄핵 정국으로 국회의 기능도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의원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택시 요금 결정 ▲택시 총량제 하의 감

차 문제 ▲수익금 전액 관리 및 택시 종사자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상시체계 기구 구성 등을 제의했다.

(편집자 주)

**Q** 탄핵정국 속에서도 민생현안문제 해결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16만4천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원님께서서는 특히 택시업계에 깊은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택시업계의 화두는 감차 보상 문제일 것입니다. 택시가 과잉증차 된 원인 중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서는 감차보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지난 몇 년간 택시업계는 격랑을 헤쳐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새해 벽두에 우리사회 전체에 큰 화두를 던졌던 '택시 대중교통법' 파동을 거쳐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 발전법)'에 이르기 까지 한 바탕 태풍이 지나간 느낌입니다.

저는 택시가 버스나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전폭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편, 합법화 논란을 야기했던 '우버택시'와 현재 시행중인 '카카오택시' 그리고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고급택시' 등 택시업계의 생태환경도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문제의 핵심은 '공급과잉'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부정책이 오늘날 택시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정책이 정부의 정책실패를 택시업계에 떠넘기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인 택시 감차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인구를 가진 도시라 하더라도 경남 김해와 같은 도·농 복합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이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택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량 산정 기준을 재보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계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업계와 운전자에게 잘못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차적 책임을 지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택시업계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Q**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나아갈 건전한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최근 카카오택시 등을 비롯한 '앱택시'가 급격히 보급되고 있으나 현재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체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 세계1위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7%를 넘어서고 오는 2050년에 가면 고령화율이 세계3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고령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복지택시 공급과 관련 규정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밖에 LPG연료 개별소비세 및 할당 관세면제 등도 택시종사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검토돼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승객감소 → 택시소득감소 → 근로조건악화 → 서비스 약화 → 승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저하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택시 산업구조의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택시관련 중요 정책인 ▲요금 결정 ▲택시총량제하에서의 감차문제 ▲수입금 전액관리 및 택시종사자의 지위향상 등을 논의할 상시협의체가 없는데 정부와 택시업계, 시민대표,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상시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16만4천 개인택시사업자와 의원님 지역구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의 대기행렬이 길어질 수록 우리사회의 활력은 떨어집니다. 얼마 전

개인택시를 이용하면서 수입이 어떠한지 여쭙보니 하루 10만원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겨우 채우는데 연료비하고 식사비 빼고 나면 몇 폰 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근심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송 분담률을 차지하는 택시를 평생 운전 해 오신 개인택시 운전자 분들께서 정작 노후를 걱정해야하는 업계의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

제 지역구인 김해시는 택시가 부족해 증차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김해와 같은 도·농 복합지역의 적절한 택시 공급을 위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는 김해시 택시운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 국토위 의원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분의 활력을 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PROFILE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남 김해시 갑
국회 직책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경력	육군 법무감(준장)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장 고등군사법원 법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제19·20대 국회의원

INTERVIEW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간사 (새누리당)



# 택시 면허 감차 계획 정부·국회·택시업계 협의체 만들자

## 업계도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다양성 실현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제공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새누리당 이우현 국토위 간사는 국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밝히고 감차 문제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택시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만들기 위해 3단체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편집자 주)

**Q** 탄핵정국속에서도 민생현안문제 해결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16만 4천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택시업계에 깊은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A** 전국 약 16만 4천 6백명의 개인택시 운송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 조합장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제도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렌터카의 서비스 증가와 대리운전 사업 증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경전철, 무가선트램 등 대중교통 증대, 장기적인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택시 수송 부담률 저하와 택시운송자들의 수입저하로 생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카카오택시, T map택시 등 스마트폰 택시 콜 어플리케이션 발달로 택시영업이 치열해지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송자들의 처우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1995년 이후 택시면허가 24% 증가하고 수송실적은 25% 감소하여 개인택시 면허 과잉공급을 지적하며 택시면허 자율감차를 요구하고 개인택시 양도·상속요건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운송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운송사업 서비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실 물가와 전체 소비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현실적인 택시면허 감차계획을 정부와 택시업계, 국회가 협의체를 이루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택시 업계 최대의 화두는 감차 보상 문제일 것입니다. 택시가 과잉증차 된 원인 중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감차보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1995년 민선 지자체가 출범이후 계속된 개인택시 면허 남발과 개인택시 양도·상속이 맞물리면서 개인택시 면허가 1995년 11만 8436대에서 2015년 16만 4617대로 5만 5900대가 증가한 반면 수송실적은 지난 10년간 약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문제는 택시운송자들이 적정한 수입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화상태인 개인택시면허를 효율적으로 감차시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택시업계, 국회가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감차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택시연료 부가가치세 감면과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등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택시 양도·상속 요건 강화의 적정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통해 합리적인 감차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Q**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나아갈 건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A** 렌터카, 리스카의 서비스 확대,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가, 신(新)교통수단의 증대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택시업계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스마트폰 택시 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생활 서비스 패턴이 변화하고 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택시업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불쾌한 실내 환경, 가까운 거리를 외면하는 몇몇 택시운송자들로 인해 택시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택시 서비스의 강점인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다양성을 살려 고객우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택시운송자들이 IT시대에 맞는 고객의 다양

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월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개선과 수송실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택시총량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16만 4천 개인택시사업자와 의원님 지역구의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택시운수업 일 것입니다.

택시운송자들의 불안한 월소득은 생계의 영향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나올 정도이고 장시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은 희망을 멎게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활력을 찾고 건전한 발전을 통한 경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PROFILE

정당	새누리당
지역구	경기도 용인시 갑
당내 직책	대외협력위원장
국회 직책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경력	용인시 의회 의장 국회 19·20대 국회의원

INTERVIEW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일 간사 (국민의당)

# 국회와 정부, 택시 업계가 서로 소통을 통해 해결책 마련돼야

## 택시요금 서울시 기준 4100원까지 인상 필요 LPG택시차량 세금 부담 완화도 이뤄져야



바른 정당은 아직 간사가 선임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국토위 세분의 간사는 공통적으로 감차보상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는 택시요금 현실화와 LPG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Q** 탄핵정국속에서도 민생현안문제 해결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16만 4천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택시업계에 깊은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A**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겸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국민 주요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고충을 항상 경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업계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택시업계가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택시업계가 상호 간에 소통을 통해 정책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택시업계의 최대의 화두는 감차 보상 문제 일 것입니다. 택시가 과잉증차 된 원인 중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감차보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지금 지자체별로 택시감차 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택시업계와 정부, 지자체 간 상호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이해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저의 지역구인 해남군의 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택시감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3억 4000만원의 택시 감차보상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군은 택시감차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장기적인 감차계획을 세우고, 택시업계와 사회단체, 소비자 대표 등으로 택시감차 위원회 구성 후 3차례의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택시감차 보상액을 결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남군의 대책 추진 사례를 참고로 택시 감차 문제의 주체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점진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합니다.

**Q** 201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는 택시관련법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택시운수 종사자분들이 혜택을 누릴만한 공약으로 '택시요금 현실화'와 'LPG택시차량 세금 부담 완화'가 있습니다.

택시요금 현실화 문제의 경우,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히 실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행 서울시 기준 3000원(지역 별로 2800원부터 3500원)의 요금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현재 평균 요금인 4100원으로, 2023년까지 선진 5개국 수준인 51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요금 인상과정에서의 택시 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수요자 측의 의견과 제반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 인상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OECD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수송용 LPG 가격이나 세금 비중이 높은 편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등의 차량 보급을 확대하여 환경문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배터리 교체 비용과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간과 공간이 상당부분 필요합니다.

반면 LPG 연료는 이미 확충된 2,000개가 넘는 충전소와 연료 자체의 친환경적 특성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기에 LPG택시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로 더욱 장려가 되어야 합니다.

**Q**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나아갈 건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A** 서민 경제위기와 함께 결부되어 택시업계의 불경기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택시업계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극복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택시감차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택시업계 종사자들 간에 충분한 협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 및 전문가 등과 전문적인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택시 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습니다.

택시는 국민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대중교통수단

입니다. 조속히 택시 운영이 안정을 찾고 국민이 편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16만 4천 개인택시사업자와 의원님 지역구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택시 운수 종사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 운영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삶이 힘들고, 내수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여러분의 어려움 또한 클 것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국회가 항상 지켜보고 택시, 자영업 같은 서민경제 분야의 규제 철폐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서민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업계가 앞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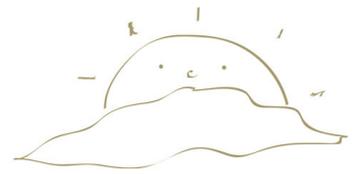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택시업계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정당	국민의당
지역구	전남 해남군·진도군·완도군
당내 직책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직책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력	UN 감사실 감사관 감사원 비서실장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원 감사교육원장 국회 제20대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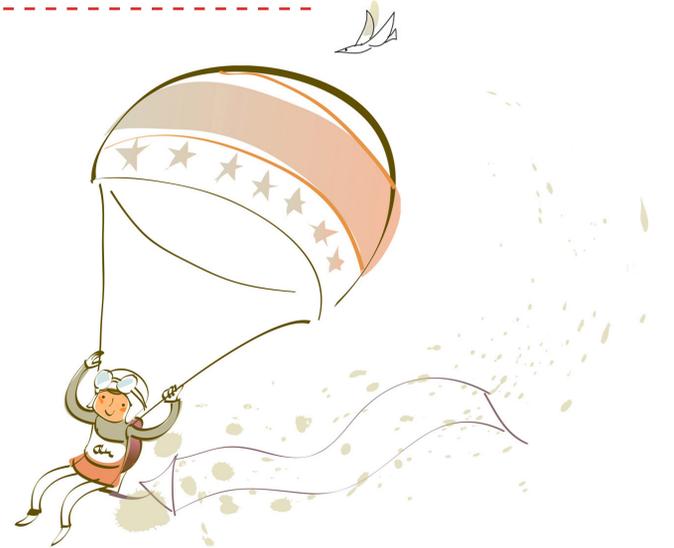
#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전국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의 새해 소망 감차 보상, 택시요금 인상, 업권보호 관련법 개정, LPG 부가세, 차량 유지비 부가세 면세 등 다양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은 2017년 새해를 맞아 자신의 역량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업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연합회와 시·도조합이 합심해 택시업계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편집자 주)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연수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 16만 개인택시 가족여러분! 5만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조합 이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난 한해는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낸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의 카드수수료 지원금이 현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상향되었으며, 카드수수료 수수료율도 2017년도에는 1.5%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로써 카드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올 한해는 조정이 시급한 택시요금인상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시계의 자동할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택시감차 방법을 보류, 중단하거나 LPG 부가세 면세 등을 통한 개인택시사업자의 부담없는 택시감차를 추진토록 함은 물론 버스전용차로의 택시통행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개인택시 사업자들께서 온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개인택시 가족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순락 이사장

정유년 새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대구개인택시 조합은 지난 한 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숙원사업인 직영 충전소를 건립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쾌거를 통해 조합원 1만 여명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분권의 가치를 상승시켜 많은 이익을 가져주는 등 항상 발전하는 대구개인택시조합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1대 선거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조합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게 되어 앞으로 전국 제일의 조합이 되기 위해 분골쇄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이룬 재선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전국 어느 조합에 뒤지지 않는 복지조합을 만들어서 1만여 조합원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유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박권수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 16만 개인택시 가족여러분! 희망이 가득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바라는 일들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으며, 이로 인한 국정마비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예고되는 가운데 경기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택시 업계는 그만큼 걱정과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우리 택시업계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어느 해보다 더욱 힘든 한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여 극복해 왔습니다.

올 한해도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개인택시의 업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은 물론 각종 세제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승일 이사장

개인택시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에 시원스런 답을 찾지 못하고 정유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닦쳐럼 부지런히 노력하여 제도가 개선되고 업권이 신장되어 개인택시 조합원님들의 염원에 답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조합원님들의 선택해 주신 뜻 되새기며,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재선을 허락하신 조합원들의 표심 변화를 무겁게 받아드려 고리타분한 논리에 갇혀 답보 상태인 조합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복지조합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에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 연회비

- 유류 국내전용 면제
- 일반 국내전용 5,000원  
(제휴연회비 5,000원, 기본연회비 없음)
- 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세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건,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5카드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7.9%의 연체이자율 적용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60309-105329호(2016.03.23)

현대카드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

**DIGITAL** Hyundai Card



###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길로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개인택시 가족 및 광주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유년 한해도 늘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에도 택시산업 부흥을 위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를 이어받아 저와 함께 새로이 꾸려진 임원들과 2017년 한해에도 개인택시 업권보호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한 부분 개정과 각종 택시관련 세제지원의 개선, 재정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19대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16만 4천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통큰 단결과 화합으로 우리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정책발굴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건의하여,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택시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영식 이사장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새롭게 인사드리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전국에 계신 16만 4천여 조합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를 맞아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며, 모든 일들이 소망하고 염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해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조합원 모두가 견고하게 하나로 똘똘 뭉쳐 제도 개선 등 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이루면서 대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 경기조합이 큰 어려움을 겪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유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도조합을 더욱 견고하게 응집시켜 강력한 에너지를 폭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성우 이사장

그 어느때 보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속에서도 어려움을 묵묵히 인내하고 계신 조합원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온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업계는 지금 양도·양수의 제한,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을 맞이하여 용기를 갖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교통 요충지인 대전조합은 조합원들이 돈벌이하기 좋은 운송 환경을 더욱 넓히고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로 수익을 창출, 조합원들의 지출을 아끼게 하는 복지조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 해 혼란한 시국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어 희망을 잃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한번 더 저를 믿고 선택하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 개인택시의 업권 신장과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택시 상을 구현토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조합원 모두가 번창하여 우리 사회의 빛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개인택시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백형선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의 밝고 총명한 기운을 받아 조합원 한분, 한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거듭되는 국내사정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우리의 사업은 극심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이룩하려는 끈기와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면서 지난날의 힘들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립니다.

저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님의 동참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최현태 이사장

존경하는 16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족 여러분!

2017년 대망의 새해(丁酉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족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최순실 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한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의 업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는 열심히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택시산업의 세제지원 법령개정을 위하여 총력 대처하여 차량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년 연장토록 하였고, LPG 택시차량의 일반인에 판매가 2017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성과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업계의 산적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업권보호를 위하여 개인택시로 공급되는 연료비,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감차보상금의 현실화 등 문제점 현안을 관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홍선기 이사장**

존경하는 16만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병신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또한 요즈음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상초유의 탄핵국면이 연출되고있으며 경제면으로도 수출은 감소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가 여전할 것이라는 여러 경제지표에 따라 택시 주변 환경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정유년은 올해에는 모든 갈등과 혼돈이 해소돼 조합원 가정에서나 사회, 국가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화해의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는 조합원의 업권보호를 위해 택시감차에 따른 감차보상금의 현실화 그리고 연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요금인상 등 우리의 업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우리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서돌식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책임감으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합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조합원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택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많은 계획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택시산업의 포화된 구조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택시감차보상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조세특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택시산업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택시발전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개정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는 조합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라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박상익 이사장**

정유년의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국민의 선택과 10월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어느해 보다도 국내정세가 혼돈과 안개정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 이후 국정농단 최대의 사건으로 오천만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바른 정치를 요구하나 당선만 되면 후보자의 마음가짐을 저버리고 국민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개인택시 업계에서 정치인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뭉쳐 정치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우리업계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정치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선거에서는 국민을 무시하며 택시업계에 관심 없던 기성 정치인과 후보자를 철저히 배제하여 대한민국과 택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017년 새해에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시도 이사장들이 힘을 합쳐 개인택시 업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호충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신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업계는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AI의 확산, 최순실게이트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정동력상실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더 열악한 영업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안정화 되어 있던 국제유가도 OPEC의 감산 합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름세에 있음은 우리의 영업환경을 더욱 가중하여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지역별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금 변경 건의를 마친 경남의 경우에도 2013년 7월 1일 택시요금 인상 후 4년이 경과 된 2017년도가 되어서야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할 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올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2017년말에 종료되는 개인택시차량의 부가세 면제가 연장될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하나로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여근하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 16만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해가 저물고 새로운 2017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한해 안으로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영업환경과 밖으로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택시업계의 위상과 권위를 위해 애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개인택시의 업권 보호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차보상 가격 현실화와 감차보상 기간 내 양도양수 금지 및 출연금 납부 조항 삭제 ▲감차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도입 적극 저지를 위해 연합회와 공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요금도 2년 주기로 조정하기로 정례화 된 만큼 요금 인상에도 주의를 기울여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하겠습니다.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전영배 이사장**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6년을 아쉬움 속에 보내고 희망의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7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의 의미처럼 새해에는 만사가 형통하고 날마다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여러가지 국가적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들의 서로 한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만 우리 택시업계의 최우선 과제인 감차사업, 근로여건,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여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단합된 힘이 택시업계를 이끌어가는 바탕이기에 다시 한번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운행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 인천, 강원 현역 이사장 모두 당선

## 경기, 광주, 충남, 제주 새 얼굴 이사장 탄생

지난해 도내 16개 시·도조합 중 이사장 임기가 끝나는 7개조합에서 이사장 선거가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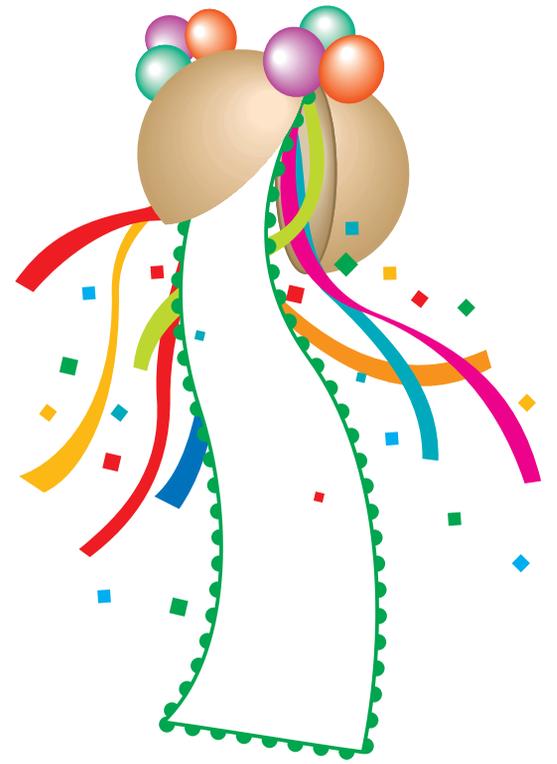
10월 26일 충남조합을 스타트로 11월 8일 인천조합, 11월 9일 대구조합, 11월 15일 강원조합과 제주조합, 11월 24일 경기조합, 11월 25일 광주조합이 순차적으로 이사장 선거를 끝냈다.

연말에 집중된 2016년 이사장 선거에서 대구, 인천, 강원조합에서는 현역 이사장이 출마해 모두 당선, 초선의 딱지를 떼고 재선의 관록을 쌓았다.

또한 현역 이사장이 출마하지 않은 충남, 제주, 경기, 광주조합에서는 새 인물이 탄생됐다.

특히 대구와 인천조합은 재선의 고지를 넘지 못하는 징크스를 깨고 재선을 허용, 의미있는 표심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지역조합원들의 표심 변화는 이사장 연임으로조합 경영이 안정되어 담보 상태에 있는 조합에 발전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원동력이 될 지 시험대가 되고 있다.



## ♣ 재선을 축하합니다

### 대구조합 | 김순락 이사장

전·현직 이사장과 현직 부회장 등 7명의 후보가 난립한 대구조합에서는 김순락 이사장이 여유있는 득표로 당선돼 재선 고지를 가뿐히 넘었다.

조합원이 1만 72명인 거대조합 대구는 선거 열기도 뜨거웠다.

직선제로 실시한 대구조합은 정치적으로 도시답게 7명의 후보가 공약을 앞세워 표밭갈이를 했다.

좀처럼 재선을 허용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표심 때문에 현역 이사장의 당선 전망은 밝지 않았다.

10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반대

파조합원의 혹독한 견제를 받아온 김순락 이사장은 4년 임기동안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조합 투명성을 높이며 반대파조합원에 대한 소통을 꾸준히 했다.

한편으로는 1만명이 넘는 대구조합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자가충전소를 갖지 못한 복지조합의 허상을 허물기 위해 '임기내 자가충전소 확보'에 도전, 승부수를 띄우고 2016년 6월 21일 완공했다.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1086평의 부지에 세차장, 정비공장, 조합원 휴

게실까지 갖춘 복지충전소를 실현시킨 김순락 이사장은 "당초조합청사까지 포함해 추진했는데 조합원의 반대가 심해 충전소만 건축하고 보니 절반의 성공에 머무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재선의 동력을 발판으로 복지조합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재선을 거부해 오다 받아드린 조합원들의 변화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조합으로 태어나 발전이 담보상태였던 대구조합이 복지조합으로 거듭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복지충전소 개소식에서 인사하는 김순락 이사장.

### 인천조합 | 김승일 이사장



▲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

김승일 현 이사장을 비롯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인천조합은 김승일 이사장에게 재선을 선물했다.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한 11대 김민환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보궐 선거에서 다크호스처럼 나타나 당선돼 2015년 6월에 취임한 김승일 이사장은 현역 이사장의 재임기간이 짧아 3000여조합원에게 이사장의 역할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김 이사장은 11대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했던 정관 개정이 조합원의 반대 에 부딪쳐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정관 개정의 아픔을 접고 젊고 패기있는 이사장의 장점을 발휘해 역동적인 추진력을 발휘했다.

인천 시장과 구청장을 거침없이 만나

인천조합의 현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견인했다.

300만 인구가 팽창한 인천시민의 쾌적한 택시 교통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공단 속에 낙후된 채 발전이 정지된조합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또한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무관심한 조합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제 12대 이사장 선거에서는 대의원을 지낸 이영진 후보, 감사를 역임한 이복동 후보, 전 복지충전소 소장인 송지훈 후보와 사차전을 벌인 치열한 접전 끝

에 당선을 낚아채 재선의 관록을 만들었다.

후보 중 가장 젊은 후보로 꼽힌 김승일 이사장의 재선은 인천 조합원들의 표심 변화에 커다란 이정표를 만들었다.

1년 6개월 짜리 11대 이사장 잔여임기보다 긴 4년 임기를 보장받은 이사장은 인천 조합원들의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면서 그동안 담보 상태였던 현안들을 해결하는 탄력을 받아 인천조합이 발전하는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김승일 이사장을 뽑은 조합원들은 기대한다.

## 강원조합 | 김주원 이사장

전·현직 이사장이 두번째 맞붙은 선거는 두 살 터울의 젊음의 대결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선거 결과는 두살 연상인 김주원 이사장이 두 살 아래인 젊음의 전직 이사장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 탄탄대로를 달리게 됐다.

더구나 강원조합 이사장 선거는 간접 선거를 실시하는 도내조합 중 유일하게 조합원 직접선거를 하는 선거구여서 선거 결과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 이사장은 강원도 내 지부 가운데 성공한 복지 지부로 소문난 강릉지부를 만든 장본인이면서 제 10대 이사장 임기

4년동안 쌓은 화려한 추진 실적이 또 한번 조합원의 신임을 받아냈다.

김 이사장은 이제 초선 딱지를 떼고 자신의 관록을 발판으로 제 11대 임기를 부여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조합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3월 13일 법인 택시와 연합해 추진한 농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을 도내 5개 군 내 14개 마을을 선정, 출발했다.

첫 해 1억 2600만원의 도비 지원 예산이 14개 농촌 마을 택시 요금으로 스며 들었다.

최문순 도지사와 희망택시 업무 추진

협약식을 갖고 출발한 희망택시 운행은 매년 도지원 예산이 늘어 2016년까지 예산은 연 5억원으로 늘어났고 참여 마을도 12개군 70개 마을로 늘어났다. 개인택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희망택시 운행은 농촌지역 택시의 새로운 운송 수입원이 돼 감차 보상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초선 때부터 희망택시 운영을 비롯, 18개 시·군 지부의 조합원 체육대회까지 도비지원을 이끌어 낸 김 이사장의 역할을 재선의 첫 해인 2017년에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조합원들은 기대한다.



▲ 희망택시 사업 업무 협약식.

또한 강릉 지부를 복지 지부로 성공시킨 김 이사장은 복지 충전소 운영을 강릉, 속초, 춘천에 이어 원주로 확대해 도시 지역 지부가 복지 충전소를 갖도록 하는데도 힘찬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 ❀ 초선을 축하합니다

### 광주조합 | 이길로 이사장

3년 임기의 제 11대 이사장을 뽑는 광주조합선거는 5명의 신예끼리 열띤 경쟁을 했다.

현 이사 2명과 전 이사 2명, 신협 이사 1명 등 도토리 기재기같은 선거였는데, 후보자 중 가장 젊은 이길로 후보가 당선됐다.

이길로 제 11대 이사장은 우리의 업권 보호와 복지 향상, 사고처리 문제 해결 등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파고들어 5명의 난립 상황에서도 4797명의 조합원 중 1118명의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돼 초선이지만 역동적으로 임기를 시작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길로 이사장은 ▲ 조합원 부담 없는 감차제도 실현 ▲ 확실한 공제 개혁 ▲ 시외지역 미터기 복합 할증제 추진 ▲ 카드 수수료 1%대 인하 추진 ▲ 조합 충전소 흑자 실현 등 선거공약을 실현해 탄탄 복지조합으로 탄생되기를 4800여 조합원들은 기대했다.



### 충남조합 | 홍선기 이사장

1991년에 개인택시 업계에 입문해 25년만에 도 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된 홍선기 이사장은 지부 육성에 조합의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이사장은 도조합과 시·군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는 현 체제에서 시·군지부도 조합원의 교통민원 해결을 비롯한 시·군의 재정지원 유입과 조합원의 복지를 해결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도조합은 시·군지부장과 긴밀한 협조로 시·군지부의 발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조합에 장학회를 조직해 조합원 자녀의 학업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 경기조합 | 김영식 이사장

우리 연합회 16개 시·도조합 중 규모가 두 번째인 경기조합 제 12대 이사장에 당선된 김영식 이사장은 불합리하고 애매한 내부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합으로 만들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한 도조합이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원콜과 충전소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조합은 수원조합에 이어 안산조합에서 경영하는 LPG 충전소 정리계획을 밝힘으로서 해당 시조합에서 복지충전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이사장은 조합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의 바람을 담아내 조합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연합회 이사로서 역할을 확대해 현재 시행 중인 택시 발전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16만 조합원의 현안 해결에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조합 | 전영배 이사장

3년 임기의 13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영배 이사장은 택시요금 조기인상 등 8개항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11대·12대 조합이사와 12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조합 경영의 경험을 쌓은 전 이사장은 ▲제주도 택시 운송사업약관 개정 ▲복지충전소 투명하게 경영 ▲택시 업계 분담금 최소화해 감차보상 추진 ▲계속적인 택시 양도 양수 조합 관장 ▲공제지부 개선 ▲블랙박스 장착 보조금 확보 ▲카드 결제 통신비 전액 도비 지원 요청 등을 13대 이사장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이사장은 선거 이후 발생하는 조합원의 분열을 조합원과 보다 많은 소통으로 하합하고 단합하는 조합으로 만들어 가는데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매출이 150억원이 되는 복지충전소는 연 1회 공인회계사 감사를 도입, 투명성을 확보하고 충전소에 전기차충전기를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김관술 기자의  
라이브 인터뷰

대전조합 김성우 이사장

# 조합경영에 기업체질 심고 사업은 깐깐하게 추진

## 하루 30명씩 대면상담으로 전 조합원 소통하는 화합 조합 주역

“2007년 2월 제 7대 이사장에 당선되고 보니 조합원인 나의 신분이 수직상승해 저만큼 높이 떠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나의 위치에 나도 깜짝 놀랐지요. 그 순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나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조합 이사장실은 조합발전을 건의하거나 교통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조합원이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방문한 조합원을 만날 때는 조합원 입장에서 듣고 대답은 이사장 입장에서 하자고 생각하고 조합은 운송노동을 하는 조합원이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운송조건을 만들어 제공해야 된다는 다짐을 했는데 지금도 그 다짐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조합원과 함께 있을 때는 충청도 사투리로 한없이 소탈하고 조합 밖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깐깐한 대전 조합 경영자로 변신하는 김성우 이사장은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10년전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다짐했던 초심을 이렇게 설명한다.

대전조합은 김성우 이사장이 경영 책임을 맡은지 1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리타분 무사안일로 대변되던 대전조합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여 생산적인 조합으로 변모했다는 칭찬도 받고 있다.

### ◆ 양반콜 탄생

‘대전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 운영에 기업 경영 체질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46세의 젊은 나이에 대전 조합 경영자가 된 김 이사장은 대전조합의 모습을 변모시키기 위해 그 어떤 기업인 못지 않게 치열한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가 맨 처음 손 댄 것은 조합원 돈벌이를 향상시키려는 브랜드 택시 추진이었다.

콜승객을 개척하면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브랜드 택시 사업계획서를 들고 대전시청을 방문, 콜택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콜장차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한편으로는 시 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 편성을 설득했다.

취임후 처음으로 부닥치는 거대한 도전이었다.

시청을 찾아가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게 김 이사장의 일상이 됐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브랜드 택시 계획서 한장을 들고 대전시청과 시 의회 의원을 찾은 김 이사장은 드디어 2007년 대전시로부터 9억7000만원 규모의 약속을 받아내 탄력을 받았다.

이듬해 3월 3일 800대 규모의 양반콜을 띄우고 2009년에 2차로 500대, 2013년에 3차로 1700대를 확대했다.

또한 2012년에는 콜센터 구축비로 1억4000만원을 지

원받아 대전시 중구 대둔산 소재 KT산성빌딩에 콜센터를 구축, 3000대의 브랜드택시를 완성했다.

콜상담직원 13명, 사무직원 2명으로 짜여져 기업처럼 운영하는 양반콜은 2016년 7월 1일에는 최고 9167콜을 받는 기록을 세웠고 평일 평균 콜 수도 6470콜로 성공가도를 달린다.

양반콜은 전국 최초로 콜택시에 대한 성공 수수료도 대당 19000원씩 6억6500만원을 대전시로부터 지원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 ◆ 전국 최초로 장애인 콜택시 도입

“최근 택시업계에 불어 닥친 경영난의 원인은 택시의 공급 과잉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감차는 쉽지 않은 절벽이었습니다. 나는 감차 효과를 찾아보니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우리 대전조합이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2009년부터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택시교통 편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현실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대전시 지체 장애인 연합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인택시를 전일 예약제 콜택시 운영 계약서를 제안, 계약을 따냈지요.”

콜택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 콜택시를 성공시킨 김 이사장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7년전 장애인 콜택시 사업 추진 과정을 회상하면서 긴 호흡을 하며 깊은 감회에 젖기도 했다.

난관을 극복하고 시작된 장애인 콜택시는 첫해에 55대로 출발, 현재는 70대로 대폭 증가됐다.

대전조합 규정에 맞게 3부제로 한달에 20일을 운행하고 운송요금은 월 252만4000원이 보장되어 조합원들이 서로 지원하는 인기 상품이 됐다.

또한 90대가 장애인 콜택시로 빠져나간 부분 만큼은 감차효과가 발생, 일반 조합에게는 운송수입이 증가되는 낙수효과가 나타나 대전조합의 효자 노릇을 한다.

### ◆ 택시 자율 감차 실시

택시운송경쟁력 회복을 위해 브랜드 택시 도입, 장애인 콜택시 사업 실현 등을 꾸준히 추진한 김 이사장은 보상 감차에도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사실 보상 감차는 우리 업계도 지자체도 모두 뜨거운 감자입니다. 업계도 지자체도 감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감차는 피할 수 없는 독배라고 생각합니다.”

감차 보상 내면에 숨어있는 고충을 김 이사장은 이렇게 털어놓는다.

기왕에 마실 거면 과감히 마시기로 작정하고 김 이사장은 대전조합을 시범지역에 포함시키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2015년 12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대전조합  
김성우 이사장

까지 54대를 감차 완료했다.

또한 자율감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62대를 감차해 총 116대의 감차 실적을 올렸다.

시범기간 동안 감차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시비 15억 8000만원, 부가세 경감분 54억 5400만원, 출연금 34억 7800만원 등 104억 4000만원이 투입됐다.

대전시 감차위원회가 1월 중에 개최 예정인데 감차위원회에서 택시 총량제 고시 등 변경 및 자유로운 양도·양수를 위한 변경 절차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한다.

### ◆ 복지충전소 운영

대전조합은 3개소의 임대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충전소를 충전 거리 등 조합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3개소를 폐소하고 3개를 새로이 개소하는 등 충전소 경영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취임 전 조합원에 0당 31원을 지급하던 할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오다 현재는 70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런 김 이사장의 선순환적인 구조에 힘입어 취임 첫 해 9850t의 판매량이 10년이 지난 지금 2016년 현재 2만2572t으로 판매량이 229% 신장했다.

또한 조합원의 이용률도 전체 조합원 5356명 중 3872명이 조합 충전소를 이용, 참여율도 72.3%로 경종 뛰었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이 운송비 지출을 최소화시켜 줘야 합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의 원칙인데 조합경영자인 이사장은 경영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고 김 이사장은 다짐한다.

대전조합은 김 이사장 취임 이후 10년 동안 조합원들에게 157억3300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사은행사를 통해 환원했다.

◆ 거대한 조직 조합원 업무 담당

감차로 조합원수가 5356명으로 감소된 대전조합은 92명의 일반직사원이 사업조합을 비롯 복지사업소, 충전소,

양반콜 4개 분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카드단말기 교체, 택시 요금 인상을 올해 추진목표로 정해 놓은 대전조합은 카드 단말기 고체 제정지원을 대전시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정지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김성우 이사장은 전 조합원 카드기 결제 수수료를 전액 시로부터 지원받아 전구 최초로 카드 결제기 통신비 전액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 ‘사랑방’식 소통

대전조합 4층에 있는 김성우 이사장실은 조합원이면 언제든지 방문하도록 열려있다. 항상 개방돼 있는 이사장실은 이사장책상과 의자가 놓여있고 이사장이 앉는 상석의 자와 손님이 앉는 두줄로 놓인 쇼파로 꾸며져 있다.

그런데 이사장의 책상과 의자, 그리고 응접세트 상석 의자는 늘 비어 있다.

“40대 중반 나이에 이사장에 선출돼 연상자인 조합원과 앉게 되면 건방지다는 인상을 받을 것 같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되겠다고 생각돼 상석자리는 늘 비워두고 조합원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했지요. 편안함을 10년 동안 즐기다보니 자연스런 사랑방식 소통의 광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 이사장은 하루 평균 30여명의 조합원과 대면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도 50통 이상 민원처리를 한다.

이런 김 이사장의 소통은 그가 9대 이사장에 출마했을 때 후보가 5명이나 난립돼 있을 때도 62%를 득표하는 후원으로 돌아왔다.

(글·김관술)

대전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강태화 이사



김용봉 이사



송명봉 이사



이상국 이사



이영노 이사



임남옥 이사



최기봉 이사



김천겸 감사



박재홍 감사



강구일 대의원



권만옥 대의원



김군수 대의원



김기복 대의원



김기철 대의원



김영식 대의원



김종근 대의원



김창수 대의원



김창수 대의원



김홍렬 대의원



류근목 대의원



류수억 대의원



민경립 대의원



윤백수 대의원



이성천 대의원



이승용 대의원



이용임 대의원



이준교 대의원



임종선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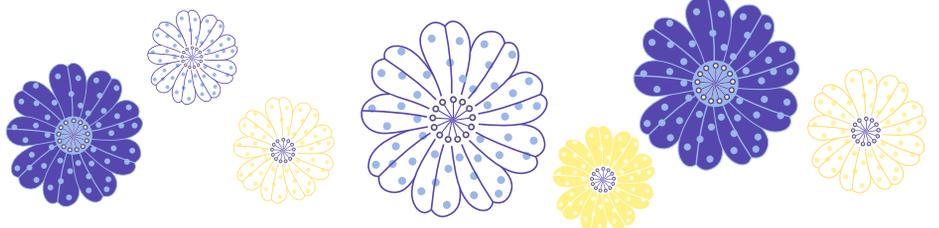
전용환 대의원



허강호 대의원



황인철 대의원



지부  
탐방

## 서울조합 노원지부

## 2개의 복지충전소 운영하는 서울 최고 복지지부

## 조합원 1천여명이 동아리 활동 참여하는 건강 조합

서울의 허파인 수락산과 도봉산을 품은 노원지부는 서울조합 산하 지부 중 녹지 환경이 제일 좋은 지역이다.

자연 환경이 쾌적한 노원구 지역을 거점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있는 4200여명의 조합원들은 서울조합이 운영하는 복지충전소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지지부로 꼽힌다.

복지충전소를 비롯한 새마을 금고 등 조합원 복지사업은 시조합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운송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교통민원 처리는 지부가 맡아서 하는 이원적 구조로 분담하므로써 조합원들의 복지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노원지부(지부장 전병돌) 관내에서는 시조합이 운영하는 9개 충전소 중 2개소가 있다.

노원지부 조합원들의 지부 사무실이 함께 있는 노원구 동일로 1776번지 소재 노원복지충전소와 공릉동에 있는 공릉복지충전소를 선택적으로 이용, 충전하면서 복지충전소의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오일 교환을 할 수 있는 카센터와 세차기, 진공청소기를 이용, 휴조때마다 차량청소를 깨끗히 하고 안마기 등이 비치돼있는 휴게실도 이용한다.

지부 사무실은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충전소 별관 3층짜리 사무실을 이용해 지부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한다.

## ◆ 단합으로 똘똘 뭉친 지부

노원지부장은 1988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 입문한 전병돌 지부장이 맡고 있다.

전 지부장은 시조합이 경영하는 새마을 금고 대의원을 4대부터 10대까지 연임하고 조합 대의원과 노원지부 차장, 부지부장을 거친 실력파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2년 1월에 지부장에 취임. 재선까지 성공한 지부장이다.

지부장을 조합원이 직저 뽑는 직선제는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선거를 둘러싸고 조성되는 파벌로 지부의 단합이 위협받기도 한다.

하지만 재선 이상의 연임을 금지하는 정관규정으로 노원지부에는 반대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속처럼 지낼 것으로 생각하는 전·현직 지부장의 관계는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해주고 밀어주고 당기는 협조가 유지돼 4200여명의 단합에 에너지가 된다.

노원지부 전병돌 지부장은 지부장실에 원두커피를 내리는 커피포트까지 차려놓고 하루에도 30여명씩 찾아오는 조합원과 대면 상담을 하는 소통으로 반대파의 소모적인 견제를 뿌리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부운영을 하는 지혜로 삼고있다.

2층 지부 사무실에는 총무과장을 비롯 4명의 총무팀이 4200여 조합원의 민원과 행정을 도맡아 처리하고 조합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자차 보상을 지부보상팀 2명이, 조합원들 예금과 대출업무는 3명의 금고 직원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서 일사분란하게 처리한다.

전 지부장은 '조합원님의 안전 운행과 항상 반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 운행하시면서 불편 사항이나 교통사고(가·피해)또는 운수사업법 등 모든 일에 상담드리고자 하오니 010-2030-6763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명함 뒷면에 인쇄한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한다.

## ◆ 동아리 모임 적극 권장

복지 환경이 뛰어난 노원지부는 4200여명의 조합원 중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축구를 비롯한 산악회,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사이클 등 6개 체육 동아리에 소속돼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라 건강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활발

서울조합 노원지부  
전병돌 지부장

히 체력단련활동을 하는데 지부는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정지원을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병돌 지부장은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조합원들의 건강과 친목을 위해서 실내 체력단련장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노력하는데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노원지부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 조합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는 한편 ▲ 협력 병원 ▲ 고문변호사 위촉 ▲ 예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 가족들의 일상적인 편의까지도 도모하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복지조합이다.

(글·김관술)



▲ 노원복지충전소는 충전도 하고 지부업무도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세차기에서 세차를 마치면 진공청소기에서 마무리 청소를 하는 노원지부 조합원들.

# 2016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접수

연합회는 택시감차계획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연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전국개인택시 16만 조합원 및 전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을 추진하였던 결과 유기준의원(부산 서구동구) 외 61인과 조합원(81,243인) 명의로 국회에 접수되었고, 이는 전국 16만 조합원의 관심과 노력의 결실이며, 청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안이유

- ☞ 택시운송사업은 자가용 증가와 렌터카의 폭발적인 증가, 택시유사업행위 증가 및 택시 공급과잉으로 장기적인 불황 상태임. 이를 해소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에 따라 5~20년 이내로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택시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새로운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택시자율감차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택시사업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여 택시감차보상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더구나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강제 의무화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용자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택시 증차의 근본적인 책임은 선심성 행정을 추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책임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택시 감차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음.
- ☞ 이에 택시연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택시감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도 타인에게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용자를 정지하는 규정을 완화 하도록 하는 등 택시 감차계획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연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택시감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 완화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용자를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택시사업자에게 전가 되고 있는 택시 감차 재원을 택시연료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으로 충당 하도록 함.
- ☞ 택시감차위원회는 감차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과반수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택시감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 2 LPG 부탄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정부는 물가안정 우선정책 추진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유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 없이 시장경제원칙을 고수하여 사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택시업계를 비롯한 운수단체는 유가보조금 계속 지급 등을 건의 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2016.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0호)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 사항
2016.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li> <li>- 휘발류 유가보조금(405.14원/ℓ) 신설</li> <li>- 1일 충전량 현행유지 등</li> </ul>

2016.0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보조금 계속지급 건의</li> <li>- 개인·법인택시, 버스 및 화물 등 7개 관련 운수업계단체 공동명의로 유가보조금 계속 지급 건의</li> <li>-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li> <li>-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건의</li> </ul>
2016.0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건의</li> <li>- 휴조일 1회에 한하여 주유 인정 등</li> </ul>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2017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수단의 증가 및 대리운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0년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0인) (2016. 10. 21)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 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대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임종성, 주승용, 정부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6.12.29)를 통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 임종성 의원 등 13인 대표발의안
  - 운행기록자료 단속·처벌 활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화(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체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벌(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주승용 의원 등 12인 대표발의안
  -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정부안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일 정	추진 사항
2016.12.29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3회 방문하여 의견제출 하고 택시에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
2016.12.20	-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2016.12.22	-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2016.12.29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국회 본회 통과
2017.1.17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운행기록자료 단속·처벌 활용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화 대상에서 택시는 제외됨.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대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현아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상기 법안은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과중한 규제 이므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교통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현아 의원 등 13인 대표발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기록장치 부착 의무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i> </ul> </li> <li>☞ 이학재 의원 등 12인 대표발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용(6세 미만)카시트 부착 의무화(1천만원 이하 과태료)</li> </ul> </li> </ul>
--

일 정	추진 사항
2016.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을 3회 방문하여 의견 제출 하고 계류 또는 상임위에 상정 하지 않을 것을 건의.</li> <li>·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하였으나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li> </ul>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대응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현아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상기 법안은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과중한 규제이므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학재 의원 등 12인 대표발의안, 정부 안</li> <li>· 전좌석, 전도로 좌석안전띠 의무 착용(과태료 500만원 이하)</li> </ul>
--

일 정	추진 사항
2016.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에서 논의 하였으나 정부 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었음.</li> <li>- 이학재 의원 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li> </ul>
2016.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을 3회 방문하여 의견제출 하고 2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에 매우 불리하고 택시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이므로 계류 또는 상임위에 상정 하지 않을 것을 건의.</li> </ul>

# 2017년도 주요 사업 계획

1 개인택시 업권보호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강력추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조합원 및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우리업계에 불합리한 법령 개정 추진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개인택시사업자의 처분완화
  - 택시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사업이 시행 중 양도·양수 금지조항 폐지
  -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규정 삭제
  -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및 과태료 규정 완화
  - 자가용자동차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강력처벌 조항 마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
  -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양도·양수, 정년제, 운행시간 제한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대응
- 앱을 이용한 무분별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근절대책 강구
  - 자가용 불법유상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 개인택시 차령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
  - 택시차령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전국의 한계주행거리가 80만km 이하인 경우 차령연장대상 포함
- 승합형 대형택시(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전국확대시행

- 대형택시는 (13인승 이하) 전국 실시 적극 추진(군지역포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 허용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행
- 차량청결상태 등 확인점검제도 위탁업무로 전환 추진
  - 조합과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차량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해 조합의 위탁업무로 추진
-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적극추진
  - 대리운전의 자동차 범위를 비사업 승용자동차로 제한
  -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 대리운전자자격시험 및 대리운전 교육제도 도입
  - 개인택시사업자의 자가용 대리운전 참여 추진
- 택시감차보상계획 실태 파악 및 적극 대응
  - 사업구역별 실태 파악 등
-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정부예산에 감차보상금 증액 건의
- 택시승차대설치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제한거리 완화
-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 개선추진
  - 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운전 허용
- 택시총량제 수립기준 관련 적극대응
  - 택시총량제 산정기준 개선 등
- 전국 브랜드콜 택시 실태 조사
  - 브랜드콜 안정 및 확장을 위한 대책 마련
  - 현행 브랜드콜 활성화 등
- 신규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허용 관련 실태파악
  -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허용 관련 자치단체 조례 실태파악 등
- 대여자동차 제도개선 및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추진
  - 대여자동차의 가맹사업제도 도입반대
  - 렌터카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대책 강구

2 세제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부가가치세 면제로 감차재원 마련
  - 감차 보상 실시로 수입증가효과 기대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연장기간 확대 (2~3년)
  - 유가보조금 197.97/L이 2017. 12. 31까지 한시적 지원이 됨에 따라 일몰 연장 추진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구입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 사업용자동차 자동차세 인상 대책 추진
  - 자동차세의 단계적 세율 인상(2015년 : 50%, 2016년 : 75%, 2017년 : 100%)에 따른 시행유보 및 인상을 축소 추진
- LPG(부탄) 할당관세 영세율 추진
  - 할당관세 영세율(기본관세 3%→0%)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추진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제재 규제 완화
  - 부제일, 부정수급으로 인한 전액환수, 지급정지 이중처벌 개선
  - 경고규정 및 단계별 지급정지 신설 추진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상향 및 운송업 부가가치율 하향 조정 추진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2400만원미만)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맞게 상향조정 추진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운송업은 20%이나 10%로 하향 조정하여 조세부담 감소 추진
- 경유택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 기존 LPG택시차량에서 경유차량으로 전환(대폐차) 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 차량 제조사에 개정된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맞는 경유택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
  - 유종의 다양화 추진으로 차량의 선택의 폭을 확대 추진
- 택시연료(LPG부탄) 가격안정화 추진
  - 국제가격(CP)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및 원가내역서 등 공개

- 국외 LPG공급 독점과 국내수요과점(6개 공급사) 개선을 위한 LPG 수급체계 다변화
- LPG 가격결정의 투명화와 불합리한 유통구조개선
- 기타 언론 광고, 정유사 및 공급업체방문 등 대책 활동 강화
- 택시표시등 광고사업 시범운영 실시 추진
  -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을 조성
  - 택시표시등 광고 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전국으로 확산 시 광고수입의 50%로 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조합원(가족포함)에게 후생 복지 사업실시 추진
- 친환경차량 도입
  -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재정지원 적극 추진
- LPG 공급사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 LPG 정유사와의 민사소송 지속 추진
  - 법원이 주관하는 LPG손해배상 입증관련 감정평가연구용역 자료 지원 및 재판부 판결 모니터링
  - 소송의뢰 변호인단과 긴밀 협력체제 구축

- 사회복지사업
  - 노인정, 고아원, 군경 및 불우이웃돕기
- 정부의 경제대책에 적극 협조
  - 자가용 요일제 운행 적극 동참
  - 사무실 에너지 절약
  - 사무용품 절약 및 재활용

##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 ◎세입

항 목	2017년 예산
<b>세 입</b>	<b>2,029,206,000</b>
○ 회비	1,678,206,000
○ 이월금	350,000,000
○ 기타수입	1,000,000

### ◎세출

항 목	2017년 예산
<b>세 출</b>	<b>2,029,206,000</b>
<b>1. 사무비</b>	<b>1,040,085,600</b>
○ 인건비	672,791,500
· 급료	346,267,200
· 상여금	206,721,400
· 수당	119,802,900
○ 물건비	367,294,100
· 여비	4,680,000
· 공공요금	12,648,000
· 제세공과금	5,090,000
· 차량유지비	52,440,000
· 수용비	22,300,000
· 수수료 수선비	6,660,000
· 시설관리유지비	36,000,000
· 복리후생비	227,476,100
<b>2. 사업비</b>	<b>731,570,000</b>
○ 물건비	194,920,000
· 여비	50,900,000
· 수용비	88,020,000
· 광고선전비	56,000,000
○ 판공비	289,200,000
· 기관운영판공비	54,000,000
· 특별판공비	163,200,000
· 홍보활동비	72,000,000
○ 이용료	30,000,000
· 수수료	30,000,000
○ 선진화지원비	217,450,000
· 회의비	166,550,000
· 사회복지비	10,000,000
· 포상비	40,900,000
<b>3. 재산취득비</b>	<b>65,000,000</b>
○ 재산취득비	65,000,000
· 재산구입비	65,000,000
<b>4. 분담금</b>	<b>14,400,000</b>
○ 분담금	14,400,000
· 단체회비분담금	14,400,000
<b>5. 적립금</b>	<b>120,000,000</b>
○ 적립금	120,000,000
· 퇴직적립금	120,000,000
<b>6. 예비비</b>	<b>58,150,400</b>
○ 예비비	58,150,400
· 예비비	58,150,400

## 3 서비스 향상과 교통안전 생활화

- 보수교육 완화 개선
  - 보수교육 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적극대처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정부지원 추진
  - 노화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 건의
  -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 반대활동 강화
- 교통안전교육 강화 적극 저지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 반대활동 강화
- 제조사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및 A/S건의 적극추진
  -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책 강구
- 운전 적성정밀검사제도 개선
  - 특별검사대상자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 3년 이상된 일반검사 대상자 면제제도 도입
- 교통안전제도 규제 개선
  -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운수단체 공동대응
  -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추진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개선
  -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 정비사업자가 차량소유자 대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사고시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및 피해구제제도 확립
  - 차량의 서비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장비(영수증발급기,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신용카드결제기 등)의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건의
- 교통사고예방활동 및 서비스개선유도
  - 좌석안전띠 매기 캠페인 적극전개 (좌석안전띠 스티커 부착)
  -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 정지선 지키기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 친절운동전개 및 운전자 제복착용 적극유도
  - 승차거부 행위 금지

## 4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경제위기극복

- 단체 활성화
  - 사기양양을 위한 모범조합원 및 임·직원 포상(창립기념일, 육운의 날, 기타)
- 홍보 및 행사
  - 연합회 신문제작 배포를 통하여 연합회 사업추진실적 홍보 및 정보제공
  - 매스컴 홍보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개선 홍보활동 강화
  - 자연보호행사 및 체육행사 실시
  - 육운의 날 행사 적극 참여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교통문화 창달
  -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추진사항 등 적극 홍보

우리조합 NEWS

#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도입 적극 대응!

우리 연합회, 법인연합회, 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실무자회의 개최

전국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법인택시연합회, 일반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개인택시조합 등 실무자는 1월 9일 당연합회 사무실에서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도입'과 관련해 긴급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업계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연대하여 공동 대응 하기로 했다.

이날 의견을 종합하고 결론을 내린 각 교통단체는 고령운전자 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도입은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로 했다.



▲ 우리 연합회는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도입'과 관련해 긴급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 내용

- 서울개인택시조합
  - 각 단체별 전면적인 자격유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인프라 부족으로 시행에 차질이 우려
  - 각 시·도 의견 취합 필요성 있음
  -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8주이상 중상사고 정밀검사, 체험교육수검자 등을 통합하여 대체할 필요있음
  - 자격유지검사는실질적인 정년제와 다름없고 양도·양수 강화의 일환이므로 대책 필요
- 용달화물연합회
  - 자격유지검사는 과도한 규제이고 뚜렷한 대책 필요
- 서울통합물류협회
  - 컨테이너 화물차는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인데 자격유지검사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배가
- 법인택시연합회
  -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출 필요성 있음
  - 수검에 따른 비용은 국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부담
- 일반화물연합회
  - 화물 운전자도 고령화 추세이므로 자격유지검사 강화는 부당

■ 종합의견

- 업계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최대한 연기
- 생계대책 등 선대책 마련 후 시행
- 사고 유발자 위주 검사
-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고령 연령 상향조정 필요
- 각 단체 회장단의 국토부 적극적 설득 필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청원 국회 접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2016년 12월 29일 국회의원 62명이 서명

하고, 8만1243명이 청원서명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유기준 국회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접수했다.

이 법은 택시연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졸리면 잠시 휴식, 졸음 운전 NO!

출발전 앞뒤 안전띠 체크!

음주운전 자살행위, 과속운전 살인행위!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 사망위자료 상향 조정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동승자 감액 단순화, 의견 수렴 후 3월부터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자동차 사고 사망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상기준(표준약관)을 내년 3월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보험금 사망위자료는 기존 4500만원(19세 이상 60세 미만), 4000만원(19세 미만, 60세 이상)에서 8000만원(60세 미만), 5000만원(60세 이상)으로 개선된다.

또한 입원간병비의 경우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부재로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도

록 되어있는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하였다.

아울러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단순화한다. 12가지에 이르렀던 동승형태를 6가지로 단순화해 감액기준을 명시화한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감액은 40%로 신설한다.

이밖에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장례비 청구권자 및 기왕증 판정기관 정의 신설, 상실수익액 지급기준, 보험료 계산방식 등이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간병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입 원 간 병 비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li> <li>▶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최대 인정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2급</td> <td>60일</td> </tr> <tr> <td>3~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상해등급	최대 인정기간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최대 인정기간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li> <li>▶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li> </ul>								

## 공제 미지급가입금의 환급

공제조합원 자격 상실 시 가입금 환불  
해당 지부에 환급여부 확인 요망

자동차공제 규정 제 7조 ①항에 의거 모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3만원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한 가입금은 공제조합 본부에서 적립·관리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지 및 양도되어 상실한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가입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사업조합을 비임의 탈퇴하거나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조합원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 양도 하거나 사업조합의 비임의 탈퇴 및 손해보험사의 이탈 이후 공제조합에 통보하지 않아 미지급가입금이 발생되고 있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양수자가 공제조합에 공제가입을 체결 신청한 이후에 비로써 뒤늦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조합원의 자격상실을 인지한 공제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바로 가입금지급안내문

을 송부하고 유선안내를 실시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시도하여 가입금의 환급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연락처가 변경되고 소재지가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된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조합의 연대와 지인 등의 협조를 통하여 변경된 연락처와 소재지를 파악하고는 있으나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상실사유가 인지되는 즉시 가입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은 유선으로 본인확인 후 바로 가입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연락처와 소재지가 함께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장기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을 위하여 올해에도 계속해서 교통신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가입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 계획이다.

조합원자격이 상실되고 아직까지 가입금을 환급받지 못한 조합원은 해당지부에 가입금 환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 개인택시연합회 공제조합 부지부장 회의 개최



개인택시연합회 공제조합은 지난해 11월 4일 본부 4층 회의실에서 본부 이사장 주관으로 본부 실장들과 전국 16개 지부 부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 경영수지 개선과 노사협력 방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부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말 기준 공제 경영수지가 △99억 당기적자를 기록함에 따른 대책으로 분담금 적정성 검토와 노사간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최근 현안이 되고 있었던 노사간 대립을 최소화하고 상생경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고, 적절한 분담

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부의 적극적인 사전대응 필요성과 본부의 유기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지부가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오흥열 공제 이사장은 공제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해 노사간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함을 각별히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공제 경영이 정상적으로 개선되어 조합원과 피해자 모두 상생하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종료됐다.

(기사 제공·개인택시공제조합)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 장거리, 장시간 주행이 많은 TAXI 일수록 견고한 BODY는 필수입니다 2017년형 쏘나타 TAXI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충돌테스트에서  
쏘나타는 **최우수 등급 TSP+** 를 받았습니다  
쏘나타 택시, 안전성으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SONATA**

**최상의 안전성을 위해** | 초고장력강, 핫스탬핑 부품확대로 강해진 BODY



• 7 에어백시스템 • 충격저감시트(완좌석) • 사시통합제어시스템(VSM)  
• 시트벨트 안전장치 •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해** | 운전자의 움직임에 따른 인간공학적 설계



• 조작감이 우수한 스티어링 휠 • 쉽고 감성적인 즐거움을 주도록 설계된 인체공학적 실내  
• 열선/통풍기능과 4Way 렘버썬포트(운전석 적용) •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안정적 퍼포먼스를 위해** | 동급 최고수준의 R&H 성능을 통한 균형잡힌 주행감성



• 후륜 듀얼로어암 멀티링크 타입 서스펜션 / 전륜 맥퍼슨 스트럿 타입 서스펜션  
•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 언더커버 • 누우 2.0LPI 엔진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월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0 LPI (AT) 복합 : 9.6km/ℓ (도심:8.3km/ℓ 고속도로:11.7km/ℓ) CO2 배출량: 140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65kg 지동6단(4등급) -2.0 LPI (MT) 복합 : 10.1km/ℓ (도심:9.2km/ℓ, 고속도로:11.5km/ℓ) CO2 배출량: 132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50kg 수동6단(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bluehands** 전문인사서비스 bluehands가 책임집니다. 화재보험/물류보험/개인서비스/신용대출/물류보험/연차서비스